

### 제4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협회는 지난달 22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IMF 2년의 회고와 한국경제의 앞날'이라는 주제로 제4회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별강사로 초빙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연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IMF 위기상황을 극복했다”고 회고하고

“이를 새 천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선진경제 진입의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IMF 위기극복은 ‘구조개혁 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회복’,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세 가지 과제가 완수될 때라야 비로소 위기극복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의 틀을 다시 세우고, 디지털 경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본 협회 정장호 회장과 손운기 상근 부회장, 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박영일 원장 등 정보통신 관련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 2000년도 정보통신업계 신년간담회 개최



우리 협회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지난 달 18일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2000년도 정보통신업계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명 동아일보 사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현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김동선 정통부 차관을 비롯해 통신사업자,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제66회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달 18일 타워호텔에서 제 6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등 15개의 안건을 심의 승인하였다. 재적임원 29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재의 협회명칭을 국내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강화 등 업무 영역 확대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변경기로 했으며(영문 표기는 현재의 KAIT를 그대로 사용), 4개 부문 19개 주요사업에 대한 200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2000년도부터 신설되는

사이버 교육사업은 한국Y2K인증센터가 수행토록 하였다.

이밖에 부설 한국Y2K인증센터의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하였다.

### 제13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달 24일 타워호텔에서 제

1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회장

에 정장호 현 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현재의 협회명칭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영문약칭 KAIT)로 변경기로 확정하고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회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국내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해외 주요 전시회 참여기회를 늘리고 신기술과 제품을 세계시장에 바로 소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산업협회가 실시해오던 정보통신업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이관받아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도 우수 전시회를 다수 유치함으로써 국

내 업체의 참여를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재직회원 196명 중 110명이 참석, 성원이 구성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는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99년

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000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 상정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보가전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정보가전 산업

△ 전자통신연구원 - 인터넷 정보가전 기술동향 및 개발방향 △ 전자부품연구원 - 인터넷 정보가전의 유망부품 △ 한국통신 -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급계획 △ 데이콤 - 인터넷 정보가전 수용 초고속 인터넷망 계획 △ SK텔레콤 - 정보가전 활성화를 위한 유무선 정보통신망 제공 △ 삼성전자 - 디지털가전 기술개발 현황 △ LG전자 - Infotainment를 위한 정보가전 연구개발 방향 △ 정보통신진흥협회 - 정보가전협의회 구성 방안

협회는 지난달 25일 나라종합금융빌딩 20층 회의실에서 국내 정보통신업체와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정보가전 사업

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종합적 진흥 육성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명과 발표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작 투자설명회 개최**



엔젤월드와 공동주최로 (주)디지털라이언 등 벤처창업 경진대회

총 2,100명의 투자희망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42억900만원의 투자희망액 중 32억4200여억원의 투자자금이 조달되었다.

이번에 투자유치에 나선 기업들은 (주)디지털라이언, (주)라임미디어테크놀로지스, (주)모임월드, (주)미리온시스템, (주)바즈코리아, (주)아이세미콘, (주)에이포미디어, (주)지구넷, (주)텔넷, 한국솔루션센터(주) 등 10개 기업이다.

협회는 지난달 11, 18, 2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주)

수상작들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